

S# 2. 주연집. 밤

주연 현관문 열고 들어온다.

* 폴리케코

걸옷을 벗다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헤드폰을 벗고 소리를 다시 확인한다.

현관문 구멍을 들여다보는 주연.

숨을 고르고 있는 현욱이 보인다.

현욱 문 좀 더 두드리다 입을 연다.

현욱: 주연아 있어? 너 집 들어가는 거 다 봤다.
야 넌, 조금, 늦은 거 가지고.

주연 쥐죽은 채 현욱 말만 듣고 있다.

현욱: 저번에도, 너네집 찾아 갔을 때 좀 늦었다 새벽 내내 밖에 세워두질 않나.
아, 더워. 그때 내가 얼마나 더웠... 추웠는 줄 알아?

이내 장금장치를 잠궤버린다.

현욱 철커덕 하는 소리 듣고 어이가 없다.

현욱: 야. 너 앞에서 다 듣고 있었지. 너 좀 나와봐. 주연아.

문을 더 두드리기 시작한다.

현관문 너머 들리는 현욱의 언성